정부, 화물파업 '밤샘주차' 단속…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

중대본, 지자체에 밤샘주차 단속 강화·과태료 요청
정부, 시멘트 이어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검토도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등 신속 처분을 요청했다.

정부는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 중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총파업에 따라 운행을 멈춘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신속·엄정 조치하겠다는 기조의 일환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사전에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 한복판 등에 1시간 이상 정차한 차량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50만원) 처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 제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9일 시멘트 업종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유·철강 등에 대한 추가 발동도 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기준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또 운송을 거부한 33개사 중 22개사는 운송을 재개했으며, 7개사는 복귀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교부에 따른 운송재개 현황을 오는 5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차량 손괴 및 운송업무 방해 등 총 24건에 대해 41명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신항에서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한 3명과 울산에서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본은 이날 화주협회, 운송사협회 등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컨테이너와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전날과 같은 65.2%로 집계됐다. 부산항은 68.7%에서 68.6%로, 인천항은 77.4%에서 76.7%로 소폭 하락했다.

전날 밤시간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11월27일) 반출입량의 159%를 기록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전주 대비 187%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전날 오후 5시 기준 8만 4000t이 운송됐다.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000t의 80% 수준이다.

다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소의 20% 수준으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선옥 기자

'강추위 피해 출근'

수도권 지역에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강추위 날씨를 보인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을 입은 한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5·18 다룬 영화 '황무지' 상영 방해 의혹…진실화해위 조사

1989년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 사건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황무지' 상영이 국군보안사령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989년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 사건 등 181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989년 A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황무지'를 제작해 상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보안사 지시를 받은 제작사 우진필름과 문화공보부의 필름 압수로 영화 상영이 중단된 의혹이 있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가 영화 '황무지'에 대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필름 탈취 등을 통해 상영을 방해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 등 인권 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부산·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충남 서산·당진 등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함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김재환 기자

광주, 농장에서 개인 승마용 말 3마리 탈출…3시간만에 원위치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돌아와

광주 지역 농장에서 말 3마리가 탈출, 3시간여 동안 농로를 활보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5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송산동의 농장에서 '개인 승마용으로 키우던 말들이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농장에 도착해 농로를 활보하고 있는 말 3마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인명피해 등이 없도록 순찰차로 마을 진입로를 막은 뒤 경광봉을 이용해 말들을 농장으로 유인했다.

경찰과 농장주를 피하며 농로를 활보하던 말들은 신고 3시간여 만에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농장으로 돌아왔다.

5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송산동 한 농장에서 '개인 승마용으로 키우던 말 3마리가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바람 소리에 놀라 말들이 탈출한 것 같다'는 농장주의 진술에 따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임형택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